그림자 기도와 그림자 응답

(열왕기하 20:1~11)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4.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7.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림자 기도와 그림자 응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그림자 기도와 그림자 응답'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백투더 퓨처(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재미를 만드는 이야기의 틀은 과거로 돌아간 상태에서 상황을 바꾸어 현재로 돌아왔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인 주인공이 어머니의 과거 대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서 만난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에 자신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자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형과 누나의 사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판타지 영화지만 상당히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 대목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어떤 사건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사건으로부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진행되어서 현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또한 현재에서 어떤 사건을 바꾸면 본래 정해져있던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서 19:23절에서 앗수르 왕 산헤립이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25절에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앗수르가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옛날부터 정해놓은 바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먼 훗날에 앗수르가 승승장구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계획 속에서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인데, 앗수르의 산헤립 왕은 이 일을 다 자기가 행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그 악의 힘조차도 통제하고 조정하고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을 품은 악의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실제로 추진해 나가는 악의 역사를 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신다는 흑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백 투 더 퓨처의 논리가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모든 인간의 일생 전체를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 간구한 끝에 응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응답이 주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나의 여생이 바뀌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의 삶도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종말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간의 삶이 나 한 사람의 계획이 변화됨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다 변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지상에 사는 수천 수억의 선민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주어져서 그 때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한 우리의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성군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마감되는 장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들처럼 몇 년 통치하다가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거나 또는 몇 줄로 우상숭배를 하다가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 다음으로 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의 전체를 마감하는 마지막 장에서 그 생의 의미하는 바를 함축하고 있는 축약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대하는 이 마지막 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죽음이었는데

이것이 특징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간구하는 면벽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병이 낫게 되고 삼일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하자, 완전한 치유를 확증받기 위해서는 삼 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불안하자 또한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 단계(십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죽을병에 걸려서 눈물로 간구했고 치유 받아 수명을 십오 년을 연장 받았으므로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자는 내용으로 일견 간단해 보이는데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마무리 짓는 본문 상에서의 이 치유 사건은 앗수르의 2차 침공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앗수르가 멸망하였고 산헤립 왕이 귀국해서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 뒤에 나오는 것으로 끌어왔지만 실제 연대기적으로 보면 앗수르의 1차 침공보다도 먼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기간이 29년이었는데 병이 치유된 이후에 십오 년을 더 살게 되었으므로 통치 14년 때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1차 침공이 통치 14년이었기 때문에 병이 나서 치유받은 해와 같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은 뒤에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들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왔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오는 중에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아직 앗수르의 1차 침공 전이었으므로 공물을 바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보물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통치 시절의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BC701년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병이 걸렸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이후에 기도하여 치유를 받고 일영표 상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을 자랑한 것을 이사야가 책망하게 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또한 앗수르의 1차 침공이 일어나고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여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동맹을 요청하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앗수르의 2차 침공을 받게 되자, 히스기야의 침묵 대응과 발빰 기도가 드려지게 되고 이에 앗수르가 망하고 산헤립 왕은 암살당하게 됩니다. 즉 오늘 이 치유사건은 이 모든 연표에서 가장 앞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 전체를 축약해서 성경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것인데 바로 그림자 기도와 그림자 응답입니다.
일영표 상에서 해 그림자가 십 단계를 뒤로 이동하는데 정말로 해가 뒤로 물러났던 것인지 아니면 해시계의 그림자만 뒤로 물러났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대하32: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

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기적을 말해줄 때에 해가 십 단계나 뒤로 물러났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해가 뒤로 물러났다면 바벨론의 방백들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는 지구전체를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낌새를 느끼질 못했다는 것의 의미는 해는 그대로 움직였으되, 일영표 상의 해의 그림자만 거꾸로 움직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수10:12)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중천에 멈추었던 것은 실제로 태양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적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볼 때에 해는 앞으로 나가고 그림자만 뒤로 갔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의 난이도 자체에는 의미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해는 앞으로 가지만 그림자는 십 단계나 거꾸로 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기적의 의미가 바로 그림자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병이 낫고 십오 년 수명 연장 얘기를 하시면서 전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병의 치유를 간구했으나 그와는 상관없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앗수르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계획대로 히스기야가 죽었을지라도, 유다 나라를 여호와의 이름과 다윗을 위해 앗수르에게서 구원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의 요점은 앗수르와의 관계였는데 앗수르와의 관계에서 히스기야의 생존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일부러 말씀해주시고, 앗수르의 침공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신바대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면벽기도를 통해 병이 낫고 일영표의 해시계가 십 단계나 뒤로 물러가서 십오 년을 더 산 것을 백 투 더 퓨처 식으로 생각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만 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평소와 같이 움직이는 중에 그림자만 뒤로 움직였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십오 년 동안 연장된 삶을 산 것은 그림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는 과정과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이 흑역사이든 백역사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히스기야 왕의 십오 년 연장된 삶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첫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죽는 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고 나서 히스기야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궤도는 수

정되지 않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십오 년의 의미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 자랑을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고, 유다의 궁극적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냥 죽었으면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유다를 건져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실 앗수르의 침공이었으나 1차 침공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막대한 공물을 바치게 되고 애굽에 손을 뻗게 됩니다. 또한 십오 년 연장 받은 기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나중에 왕 위에 오르는데, 북 왕국과 남 왕국의 역사를 통 털어서도 감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가장 악독하고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자식들을 몰록에게 바치는 일까지 행했던 자였는데 이것이 목숨을 연장한 십오 년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고후5:8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는 하나님의 죽음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편이 나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정체가 그림자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세상과 환경에 대한 기도인 한 응답이 주어질지라도 그림자 기도이고 그림자 응답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계획에 아무런 수정을 가할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치유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가르치려 하심입니까?
히스기야의 치유가 국가와 역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 역사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십오 년 기간 동안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을 자랑하다가 야단맞고 유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 받고 패역한 므낫세를 낳고 앗수르의 1,2차 침공의 여러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림자 기도를 하던 사람이 발뺌 기도하는 자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 기도는 이 세상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기도입니다. 그 변화에 대한 응답을 받아도 그 뒤에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과연 내게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래 계획에 수정을 가할 수는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림자 기도를 드리는 자에서 발뺌 기도를 드리는 자로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기도 때에는 세상을 마음 안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여서 그 상황을 내가 주관하고 하나님

을 동원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발뺌 기도 때에는 주어진 상황이 내 상황이 아닌 것처럼 마음이 빠져나가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에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가길 바라고 어려움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려움이든 쉬움이든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계획은 태양이 지나가듯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궤도를 수정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변화는 우리 마음이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발을 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게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중단하고 우리 마음이 지상의 상황으로부터 발뺌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동안 쉬지 않고 해야 될 모든 기도의 내용은 그림자 기도로부터 발뺌 기도로의 변화를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면 돈 없어서 시작된 그림자 기도일지라도 기도 중에 발뺌 기도로 바뀌어서, 돈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대면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내 마음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기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가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돈 문제가 더 악화되든 해결되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림자 기도로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위해 정해놓으신 뜻에 어떤 변화도 초래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태양은 지나가지만 그림자가 거꾸로 간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연장된 십오 년 생애는 왕으로 살았지만 유다의 역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구원해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히스기야는 십오 년 동안에 그림자 기도를 하고 그림자 응답을 받던 자에서 발뺌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설교처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죽고 발을 빼서, 오직 마음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으로 기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 끌어안고 드리는 그림자 기도의 응답이 주어져도 그림자일 뿐인 것을 모르고 그림자 응답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 죽고 마음이 발빰하여 아버지로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그럼으로써 이 세상 상황은 아버지가 태초에 정하신 대로 진행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